

제50회 신문의 날 축하 메시지 - 공정한 사실, 책임 있는 주장 -

제50회 신문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발행인과 편집인, 기자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신문인 여러분께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나라 신문의 역사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역사입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50년 신문의 역사는 우리 현대사의 발자취 그대로입니다. 숨길 수 없는 부끄러운 과거도 있었지만 온갖 시련 속에서도 정의롭게 행동해 온 신문인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민주주의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온갖 고통과 희생을 감수해 온 신문인들과 그분들이 지켜 온 우리 신문의 역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도 참여정부와 일부 신문 사이에 건강한 긴장관계를 넘는 비정상적인 대립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은, 관용과 대화를 본질로 하는 민주주의의 장래를 위해 심히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들어 우리 언론환경이 많은 진보를 이루었다는 사실 또한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우리 언론에 대해 긴장과 견제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매우 건강한 관계로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은 정부를 감시

하고 견제하는 일이 본분이므로 정부와의 사이에 긴장이 없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일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로서는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이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나아가 정부가 언론을 견제하는 힘겨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이 우월한 힘을 일방적으로 행사하던 권위주의 시대나 초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언론이 국가권력을 견제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양한 기관과 시민사회에 권력이 분산되고, 그중에서도 언론의 영향력이 막대하게 커진 사회에서는 언론 스스로 횡포가 가능한 우월적 권력이 되지 않도록 견제받지 않으면 안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소비자와 시민사회, 그리고 사법기관이 함께해야 할 일이지만 각기 그 역할이 충분하지 못한 현실에서 정부의 역할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기사의 정확도와 분석·비판의 수준이 많이 높아지고, 정부와 언론의 관계도 단순한 갈등 관계를 넘어 선의의 경쟁과 창조적 협력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 신문에게 ‘공정한 사실, 책임 있는 주장’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정확한 사실’이 아니고 ‘공정한 사실’을 주문하는 이유는 우리 신문이 근거 없는 사실을 함부로 보도하는 수준은 이미 넘어섰지만, 때때로 파편적인 사실은 정확하나 사실의 불공정한 취사선택으로 전체적인 사실은 부정확한 보도를 하는 경우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주장’을 주문하는 이유는 깊이, 그리고 다각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듯한 보도나 합리적인 대안이 없는 주장과 비판으로 사회일반의 인식과 여론에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의제를 선정하고 이끄는 데 언론만큼 영향력 있는 주체도 없습니다. 신문이 우리 사회의 과제와 미래를 공정하고 책임 있게 제시하고 우리 국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노력할 때, 양극화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미래 과제들도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 신문이 사회적 공기로서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문의 날을 거듭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